

## 2111 예약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에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

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는 그에게도 책임을 ㉤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에 대해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26.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 2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28.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   | ㄱ        | ㄴ           | ㄷ        |
|---|----------|-------------|----------|
| ①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2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 26. 세부 내용 파악

### ■ 정답해설

- ⑤ 5문단에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해설

- ① 2문단에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합의가 없어도 계약상의 채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3문단에 예약의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 성립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상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본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가지 유형의 예약 모두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상의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7. 중심 내용 파악

### ■ 정답해설

- ③ 2문단에서 계약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일상에서의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예로 들어 이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예약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활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당사자의 합의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성립시키는 행위로서 다만 기차에 탑승하는 권리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오답해설

- ① 기차 탑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고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이 급부이다. ② ㉠은 기차 탑승 서비스 제공을 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에 따라 발생한 채권, 즉 상대방에게 특정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 ④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어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약이다. 2문단에서 ㉠은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였으므로 ㉠에서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을 탑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예약 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8. 생략된 내용 추론

### ■ 정답해설

- ①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상 급부는 본계약 성립의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급식 계약을 승낙하는 것(ㄱ)이다. 예약상 급부에 의해 본계약이 체결되면 본계약상 급부가 발생하는데, 이는 급식 제공에 따라 급식 대금을 지급받는 것(ㄷ)이라 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예약상의 급부는 없다(ㄴ)고 볼 수 있다.

## 29. 구체적 사례 적용

### ■ 정답해설

- ④ 갑의 손해가 을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을이 증명하지 못했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고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병 역시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지게 된다. 을과 병 모두 손해 배상의 채무는 지지만 병은 갑과 급부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 오답해설

- ① 을은 갑에게 약속한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지게 된다.
- ② 을이 고의가 있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역시 손해 배상의 채무를 진다. 다만 5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인 을이나 방해자인 병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지므로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의 채무는 사라진다.

- ③ 4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을이 갑의 손해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5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병도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채무를 져야 한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예약 상대방과 방해자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는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을과 병의 급부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⑤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다면 을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병은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므로 을과 달리 갑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채무를 진다.

## 30. 단어의 의미 파악

### ■ 정답해설

- ② ⑥의 '받기'와 ②의 '받았다'는 모두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 ■ 오답해설

- ① ④의 '가진'은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①의 '가지는'은 '생각, 태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품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③ ③의 '생길'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③의 '생긴'은 '없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④의 '물을'은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을 따지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④의 '물어'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방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⑤의 '끼치는'은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의 의미로 쓰인 반면, ⑤의 '끼쳤다'는 '소름이 한꺼번에 돌아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 허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한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虜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홀\***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발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낫는 ㉠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그 아니 조홀쏘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 **검불\*** 갖하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요양 : 청나라의 심양.  
\* 학가 :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참승홀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성려 : 임금의 염려.  
\* 검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헛골에서 살 때 일이었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하였다. 그러하면 그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며,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돋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게를 먹고 중독되어 **곽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되,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A]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간죽하수문주인 :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누추한 집.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발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씩은 향나무 껍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 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 [33~37] 고전 시가 - (가) 이정환, '비가'/ 현대 수필 - (나) 이병기, '풍란'

해제

(가)는 작가가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 지은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병자호란의 결과 조선은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가 느낀 수치심과 비통함,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특히치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한탄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제1수에서는 꿈을 통해 청나라에 붙잡혀 있는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이, 제4수에서는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제상을 떠올리며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 하는 상황에 대한 개탄이, 제 6수에서는 무신이 많으면서도 싸우지 못하고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에 대한 아픔이, 제 7수에서는 두 왕 자와 백성들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고 근심하고 있는 임금의 모습이, 제 8수에서는 자신을 풀에 대조하면서 국치를 당한 데 대한 아픔이, 제9수에서는 치욕적인 역사적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다.

주제: 국치 (國恥) 에 대한 비분강개

해제

(나) 는 작가가 난(亂)을 기르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다. 작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을 거치며 난을 일으켰던 경험에서 비롯된 난에 대한 애정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 고난과 시련의 시간에도 자신의 옆에서 위안이 되어 준 난에 대한 애정과 예찬을 두 수의 시조에 함축적으로 담아내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33. 화자의 태도 이해

■ 정답해설

① (가의 화자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세자와 백성들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상황에서 고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꿈'에서나마 '만 리 요양'을 가서 '학가 선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름겨워 흐노라'와 '갈 길 몰라 흐노라'를 통해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해설

② (가)에는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비통해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는 작가가 역사적 순간마다 고난을 겪으며 힘들게 삶을 영위하는 모습과 그때마다 난 역시 고난에 처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난으로부터 위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삶을 유한하다고 인식하거나 이를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서 작가는 고난의 순간마다 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현실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뇌하고 회의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함께 해 준 난에 대한 고마움과 예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 34. 작품의 종합적 감상

### ■ 정답해설

- ③ (가)에서 화자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졌다는 것은 화자가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가 '서울'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오답해설

- ① (가)에서 '학가 선객'은 병자호란 후에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킨다. 그런 그를 '꿈'에서 보았다는 것은 화자가 소현 세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에 나오는 '박제상'은 신라의 사람으로, 일본에 잡혀간 왕의 아우를 구하고 죽은 충신이다. 화자는 그러한 충신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조선어 학회 사건', '8·15 광복',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상황 아래에서도 뿌리만 성한 난을 돌보아 살리거나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풍란'을 길러냈다는 말을 통해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작가는 '두실와옥'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대조되는 누추한 공간이지만, 고서와 난, 그리고 술 한 병이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즉, '정신'을 기르는 존재로서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5. 소재의 기능 파악

### ■ 정답해설

- ⑤ ㉠은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저절로 잘 자라는 존재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고뇌하는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은 이리저리 날리는 존재로, 부정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 오답해설

- ① ㉠은 화자와 대비되어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은 화자가 혼란의 역사적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이므로, 둘 다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라고 할 수 없다.
- ② ㉠이 저절로 자란다는 것은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 고자 한 것이며, ㉡이 바람에 날려 갈 곳 모른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둘 다 세월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볼 수도 있으나, ㉡은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라기보다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는 소재이다.
- ④ 화자는 전란 후의 치욕적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은 과거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라기보다는 현재의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다.

## 36. 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

### ■ 정답해설

- ⑤ <제7수>의 ‘달 밝은 밤’은 임금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고, <제8수>의 ‘봄비’는 화자와 대비되는 ‘풀’을 자라게 하는 소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오답해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는 화자가 꿈속에서 청나라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에게 다녀왔다는 의미이고,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는 청나라에 잡혀 있는 세자를 모셔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두 구절에는 세자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제4수>에서 박제상이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것과, <제6수>에서 ‘조구리’와 같이 세자를 호위하여 모셔 올 이가 없다는 것은 화자가 이러한 충신이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제6수>에서는 나라에 무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하여 어려움(辛苦)에 처했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란 <제7수>에서 말하는 세자의 ‘이역 풍상(異域風霜)’이다. 즉 ‘이역 풍상’은 청나라와의 화친으로 인해 세자가 이국(異國)에 잡혀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 ④ <제7수>에서 화자는 잠을 자지 못하며 근심하고 있는 임금을 떠올리고 있으며, 나아가 <제9수>에서는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라 말하며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것을 알 수 있다.

## 37. 작품의 종합적 감상

### ■ 정답해설

- ① ‘썩은 향나무 껍질’은 난이 자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난의 ‘옥 같은 뿌리’와 대조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 작가는 난이 ‘화려 광활’한 ‘요릿집’과 어울리는 대상이 아니라 ‘두실 와옥’과 어울리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옥 같은 뿌리’가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 오답해설

- ② 4문단에서 작가는 난이 피워낸 하얀 꽃의 ‘방렬-청상한 향’을 맡으며 [A]를 창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때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으로, 이것이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③ [A]의 바로 아래 부분에서 작가는 ‘나는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단락에서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고 하였다. 즉 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자신은 [A]의 ‘아는 이’로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A]의 위 부분에서 바닷게를 먹고 병이 나 병석에 있으면서 난을 곁에 두었는데, 그 향이 좋아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⑤ [A]에서 작가는 병상에서 옆에 둔 난초에 대해 글을 쓰면서 ‘옥 같은 뿌리’,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이라는 어구로 ‘난’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늘 함께해 온 ‘난’에 대해 예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